

본보 '2025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성료

지역민 중심 축제...관광 활력 도모
전문가 강의·현장 체험 등 5강 진행
이경수 대표 "산업 발전 위해 동행"



광주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한 '2025년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중강식이 30일 광주문화재단에서 열려 원우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충식기자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배우고 이를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한 '2025년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가 30일 중강식을 가졌다. 지난 16일 개강식과 함께 첫 강의를 시작한 관광아카데미에는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 및 관광재단, 관광산업 종사자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다섯 번째 걸친 주제 강연과 부산·대마도 등 지역 우수 관광콘텐츠에 대한 현장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강의는 ▲1강 강신경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의 '관광은 지역을 살리고,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요?' ▲2강 석창호 진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의 '지역개발형 축제의 글로벌화' ▲3강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의 '로컬관광의 중요성과 부산관광' ▲4강 대마도 전문 강사의 '대마도 관광 보고, 대마도 투어' ▲5강 안태기 광주대학교 교수의 '지역소멸 시대 살아남는 축제 만들기'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중강을 맡은 안태기 교수는 "축제는 생물과 같다.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다른 곳을 बे끼는 축제, 예산이 부족한 축제, 처음 시도하는 축제, 앞으로 새롭게 기획해야 할 축제 모두 나름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 젊은 인재 발굴, 생활 인구 확대, 마이크로 여행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관광객 유치에만 매달리기

보다 지역민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행복한 축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4강은 관광아카데미 원우들이 2박3일 일정으로 부산과 일본 소도시인 대마도를 찾아 한적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청정한 자연경관, 역사 유적 등 다양한 현장을 학습하면서 원우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날 중강식에서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업무를 수행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애써온 관광 담당자와 책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아카데미를 6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이사는 이어 "과정을 마무리할 때마다 부족했던 점과 미흡했던 부분이 떠올라 아쉬움이 남지만,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태호기자



나주배원예농협·청년회, 배즙·배기탁

나주시는 30일 "전남 나주배원예농협과 청년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다자녀가정을 위해 배 50박스와 배즙 5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동희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나주의 대표 특산물인 배와 배즙을 준비했다"며 "다자녀가정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태 청년회장은 "이번 기부가 다자녀가구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배농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성 어린 선물을 마련해 준 나주배원예농협과 청년회에 감사하다"며 "기탁품은 필요한 가정에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기자



여수경찰, 추석 명절 범죄예방 전략회의

여수경찰서는 지난 29일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석 명절 범죄예방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각 과장과 지역관서장이 참석해 명절 기간 유지 방안을 논의하며 범죄예방, 여성 청소년, 112, 교통, 행사 등 모든 기능을 총동원하는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경찰은 이번 추석 연휴가 최장 10일에 달하는 만큼 귀성 차량이 몰릴 주요 교차로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교통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해 사전 모니터링과 유관 기관 공조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1일에는 거북선공원과 학동 변화가 등 범죄 발생 다발지역에서 여수경찰·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60여명이 합동 순찰을 펼치고,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장흥소방,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장흥소방서가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및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30일 장흥소방서에 따르면 행사는 전남 장흥실내체육관과 야외운동장에서 김성 장흥군수, 의용소방대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전에는 화재예방 캠페인과 함께 소방호스 끌기, 단체줄넘기 등 기술경연대회가 열려 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과 협동심을 뽐냈다.
또 유공자 39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재능 현장 활동과 예방 캠페인, 봉사활동에 헌신해온 대원들의 노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사기와 자긍심이 한층 높아졌다.
문병은 장흥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가 주민과 대원 모두가 안전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흥=노홍욱기자

모집
▲'남동정원' 1기 회원 모집=대상:20대 이상 광주 시민 누구나, 강의시간: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월 중순부터 총 10강), 강의 장소:살아있는 글쓰기연구소(광주 서구 쌍촌동), 강의 내용:아름다운 문장 낭독, 문장력 향상 훈련 등, 문의:010-9477-5561.



광주매일신문 '청년 미디어 직무일경험' 2기 성과공유회

광주매일신문이 운영한 '청년 미디어 직무일경험 프로젝트' 2기가 30일 오후 3시 본사 스튜디오에서 성과공유회를 열고 8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과정에서 청년기자들은 청년 노동과 청년 문화를 주제로 기사와 영상을 제작했다.
투경스팀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와 Z세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덕질' 문화를 다뤘다. 자체 설문과 현장 인터뷰, 그래프 등 데이터를 활용해 청년들의 불안을 수치로 드러내거나 만화·K-POP·아구 등 사례를 통해 청년 문화의 공통점을 분석했다.

주주팀은 청년 배달 라이더 문제를 취재해 폭우 속 위험한 배달, 풀 거절 불이익, 안전 부재 등 열악한 현실을 조망했다. 이어 지역 록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문화적 열기와 한계를 함께 담아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팀이 주제 선정 배경과 취재 과정, 제작 소감을 발표하며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언론의 기능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 의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매체를 친근하게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추석맞이 식료품 나눔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은 30일 (주)하림산업 '푸드버디'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추석맞이 아동 식료품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눔을 통해 광주 지역 300여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어린이 라면 800박스가 전달됐다.
최강민 단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함께 나눔을 실천해 주신 (주)하림산업 푸

드버디와 세이브더칠드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순희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기업과 기관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지원이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아이들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전남개발공사,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 '대상'

전남개발공사가 30일 '제5회 조달의 날'을 맞아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 '2025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공공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개발공사는 'Open 혁신조달, With 전남 미래'를 비전으로 토목, 에너지 등 12개 품목별 전문 전담조직 운영,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 현장 수요 기반 혁신제품 제안, 공공구매박람회 개최, 챗GPT 기반 자문 시스템 도입 등 독창적 혁신조달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5년간 친환경·안전·스마트 분야 중심으로 약 40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하며 혁신제품의 실증성·적용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조직 전체가 함께 추진해 온 혁신 조달의 결실"이라며 "지역 혁신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서해해경청, 정보통신보안 역량 강화 워크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교육훈련센터에서 '정보통신보안 워크숍'을 열고 사이버 침해 사례 공유와 정보보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해청 소속 5개 해경서(군산·부안·목포·완도·여수)와 해상교통관제센터(군산·목포·완도·여수)의 정보통신보안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예방 ▲최신 사이버 해킹 수법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 등을 학습하고 변화하는 보안 위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서해해경청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보안 담당자들이 최신 보안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신뢰에 부



응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고도화된 정보통신 환경 속 다양한 보안 취약점과 위협 요소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보보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5·18유족회-푸른마을공동체센터 '오월정신 계승' MOU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30일 푸른마을공동체센터(센터장 정호)와 '5·18정신 계승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기념·문화사업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청년 창작자와 소상공인 네트워크 지원 ▲주요 행사 공동 참여 및 홍보 협력 ▲문화·교육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활동 등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 소통과 상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이번 협



약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오월 정신이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역사적 가치가 공동체 정신의 복원과 함께 더욱 빛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로공사 업무협약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0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담양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사회 사회공헌을 목표로 지역 내 위기·취약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추석을 맞아 담양군 내 위기 청소년들에게 총 100만원의 은누리상품권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공한다.
손은아 센터장은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학업과 꿈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



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위기청소년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